광주은행 인수 후보 기준 지역정서나 자금력이냐

7곳 응찰 오늘 예비입찰적격자 발표…광주·전남상공인연합 포함 촉각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인수 후보자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광주·경남은행 예비입찰제안서를 평가하고 18일 숏리스트(입찰 적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지난달 23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예비입찰 서류를 낸 곳은 각각 7곳, 4곳이다.

광주은행 입찰에 참여한 곳은 DGB금융지주, BS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광주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된 광주·전남상공인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7곳이다.

경남은행 입찰에는 DGB금융지주, BS금융지주, 경남·울산 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IBK기업은행 등 4곳이 참가했다.

숏리스트 발표에 앞서 금융권에서는 숏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결국엔 '최고가 낙찰 원칙'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며 "기본 요건을 갖추면 숏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자금력이 이번 매각 경쟁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이번 광주은행 인수전에서는 DG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 J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광주·전남상공인연합 등이 숏리스트에 올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도 후보군에 들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라는 전제를 이유로 최고가 낙찰 원칙을 내세우더라도 지역 정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은 숏리스트에 무사히 오를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숏리스트의 경우 심사 수위가 높지 않은데다 예금보험공사가 내세우는 '최고가 낙찰 원칙'에 앞서 서류를 제출한 곳에 대해 '적격하느냐'를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광주상의 한 관계자는 "인수자문사와 서울의 태스크포스팀은 숏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광주은행뿐만 아니라 경남은행도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지역정서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의 예를 들며 정부가 산업자본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함께 지역자본 위주의 컨소시엄을 이유로,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의 탈락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숏리스트에 선정되는 후보들은 다음주부터 8주간의 예비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본입찰 등을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이전 15개기관 연봉

전력거래소 8500만원으로 1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발전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연봉이 공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13년 기준 15개 이전기관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전기관 임직원의 평균 총 연봉은 4500억원에 매월 373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농촌경제연구원 총 연봉 4500억원 달해 연소비 5000억 웃돌듯

관심을 끌고 있는 15개 이전기관 중 직원 최고 연봉은 '전력거래소'로 평균연봉이 8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농촌경제연구원(8242여만원)과 한국전력(7300여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6231여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6199여만원), 한국농어촌공사(6146여만원), 한전KDN(6128여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6044여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5861여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5834여만원), 농수산물유통공사(5658여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연봉이 대략 표시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농림수산식품연수원, 국립전파연구원은 각각 47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15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각종 소비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세종시 단독 이주세대의 경우,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평균 15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15개 공공기관 임직원 7004명이 나홀로 이전하더라도 지역에 월 100억여원을 지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초기 가족동반 이전 희망자 세대 20%와 15개 공공기관별 비정규직들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소비 지출액은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15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치상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며 "내년 혁신도시가 준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이전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광주·전남 특허출원율 전국 최하위권

광주·전남지역의 특허 출원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18일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의 지난해 특허 출원 비율은 각각 1.7%, 1.3%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시·도별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서울이 37.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9%), 대전(4.7%), 인천(4.1%), 부산(3.5%)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특허 출원 비율은 68.9%에 달했다. 6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와 울산은 1.7%로 최하위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의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패션쇼에 갤럭시 노트 증정 삼성전자는 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일모직 여성브랜드 구호(KUHO) 10주년 기념 패션쇼에 갤럭시 노트 3와 갤럭시 기어 25세트를 증정했다. 제일모직 정구호 전무(오른쪽)와 모델 이현이가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를 착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농업법인 19% 늘고 매출은 뚝

농업법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법인당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2년기준 농어업법인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수는 1만3913개로 전년 (1만1690개)보다 19.0% 증가했다. 이중 농업법인은 1만2981개로 19.5%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법인의 증가는 과다한 경쟁을 불러 법인당 매출액 감소를 가져왔다.

농업법인의 총 매출은 17조985억2300만원으로 전년(14조4100억6100만원)보다 18.7% 증가했지만 법인당 매출은 14억8680만원에서 14억5560만원으로 3120만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법인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돼 법인당 매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어업법인은 사정이 좀 나았다.

어업법인수는 2011년 823개, 2012년 932개로 13.2% 증가했으나 총 매출이 9576억1700만원에서 1조1507억1700만원으로 늘면서 법인당 매출은 12억7510만원에서 13억2570만원으로 4.0%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4인이하인 법인 비중은 농업 63.5%, 어업 63.9%로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법인당 경영경지면적은 11.7ha로 전년비 11.4%, 어업법인당 양식장 시설면적은 5.4ha로 31.7%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동양그룹 5개 계열사 법정관리 개시

김철·현승담 대표이사 배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2040.61 (+6.00)	521.52 (-4.16)	2.85% (-0.02)	1063.70원 (-1.80)

기아차 '올 뉴 쏘울' 내부 디자인 공개

기아자동차가 22일 출시 예정인 '올 뉴 쏘울'의 내장 디자인을 선보였다.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올 뉴 쏘울'의 인테리어는 개성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안락함과 편의성까지 갖춰 스타일과 품질 모두에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기아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 차는 블랙하이그로시, 인조가죽 등을 적용해 한층 고급스러워진 실내 분위기와 플로어 콘솔부 위에 배치된 시동 버튼, 공조기와 스피커의 일체형 디자인 등 조화를 이루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해냈다.

또 앞좌석 시트에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을 탑재하고 뒷좌석 역시 열선 시트 등 다양한 시트기능을 적용해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22일 출시되는 기아차 '올 뉴 쏘울'의 메인 대시보드.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만의 DNA를 재해석해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올 뉴 쏘울'의 인테리어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 높은 완성도에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뉴 쏘울'은 14일부터 사전계약을 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